

인쇄본 백과사전의 평가요소 분석

An Analysis of Evaluation Points for Print Encyclopedias

박 준 식(Joon-Shik Park) *

김 문 영(Moon-Young Kim) **

목 차

1. 서 론	3. 3 접근성
2. 몇 가지 평가이론과 평가요소	3. 4 기술형식
3. 평가요소의 분석	3. 5 형태적 특징
3. 1 목적과 범위	3. 6 특징과 가격
3. 2 권위	4.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인쇄본 백과사전의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상적인 백과사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방법은 평가내용을 목적과 범위, 권위, 접근성, 기술형식, 형태, 특징과 가격 등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 아래에서 세부적인 평가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단순히 평가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평가요소별로 이론적 당위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bility to select good encyclopedias by analyzing the evaluation points for print encyclopedias. For this purpose, it investigates 6 evaluating categories suggested in the related literatures, such as purpose & scope, authority, accessibility, writing style and characteristics & cost, and then draws and analyzes in detail the specific evaluation points under each categories.

In the process of analysing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the theoretical appropriateness to each evaluating points, not simply suggesting another evaluation points.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계명문화대학 문헌정보과 강사

접수일자 1999년 4월 12일

1. 서론

백과사전은 인류가 이룩해 온 지식의 체계적 요약으로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정리한 참고 정보원이다. 사서들은 오래 전부터 어떤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원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배경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백과사전을 즐겨 이용해 왔다. 각급 도서관이 백과사전을 중심으로 참고집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백과사전의 참고정보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학생,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참고할 만한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양질의 백과사전이 발간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백과사전이 대학 입시의 논술교육을 위한 한 방법으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백과사전과 학습용, 그리고 주제영역별 백과사전의 출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쇄본 이외에도 온라인, CD-ROM,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적 형태로 개발, 시판되고 있다.

백과사전의 참고정보원적 가치나 일반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백과사전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비해 백과사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일반 독자나 사서들이 다양한 형태와 종류 가운데서 훌륭한 백과사전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나 평가요소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백과사전'이란 항목에 대해 기술된 분량은 Britannica가 20쪽에 이르며,

평가기준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Collison, 1994, 18: 257-277). 반면에 『두산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 분량이 3쪽도 안되며, 평가기준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1996, 12: 27-29).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우수한 백과사전을 전문적으로 안내 하는 Kister's Best Encyclopedias나 Encyclopedias, Atlases & Dictionaries 같은 전문서가 있고, Booklist (Reference Books Bulletin)를 포함한 다수의 서평전문지가 백과사전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이런 안내서나 서평지도 없을뿐만 아니라 백과사전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 논문에서도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본 백과사전의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이상적인 백과사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작업은 사서와 독자들에게 우수한 백과사전의 선택능력을 제고시키고, 구입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백과사전 출판사는 효용성이 높은 백과사전을 출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요소가 인쇄본과는 상이한 전자백과사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 둔다.

2. 몇 가지 평가이론과 평가요소

백과사전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평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해 왔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독서를 위한 평가와 도서관의 장서

구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 평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한 도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내용과 본질을 독자에게 소개하며 가치평가를 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평가는 이러한 목적 외에 그 도서의 형태적 조건이 도서관 장서용으로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한 판정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참고자료는 그 제작 의도가 일반도서와는 판이하여 일반도서의 평가요소를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박준식, 1998, 386-387).

백과사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이미 1902년에 A. B. Kroeger가 Guide to Reference Books의 초판을 출판할 때부터 참고도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일부로써 소개되고 있다(Kroeger, 1902). 그러나 평가의 체계적 시도는 1930년에 James I. Wyer가 편찬한 Reference Work에서 비롯된다. 이 당시는 참고도서에 대한 지식이 참고사서의 기본이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참고도서의 선택과 구입이 참고사서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제시한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Wyer, 1930, 20-21).

- 1) 문헌적 관점
 - 정확성, 최신성, 집필진의 권위와 서명여부, 문체(학구적, 대중적), 범위, 기사의 길이, 강조점, 공정성과 객관성, 편집자와 발행자의 역사적 배경, 국가적 강조점의 여부.
- 2) 서지적 관점
 - 배열(대항목, 소항목), 알파벳순 배열, 서지 여부와 정확성 및 위치, 최종판 연

도, 상호참조와 색인 여부, 지도와 도판의 종류와 질적 수준, 보유판, 연감 등의 발행 여부.

3) 물리적 특징

지질, 규격, 제본, 인쇄상태, 레이아웃, 권수

1950년대 중반에 Louis Shores는 1930년에서 1948년까지 Subscription Book Bulletin에 게재된 백과사전의 서평 기사를 발췌, 재편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만들었다(Louis, 1954, 60-66).

- 1) 권위: 출판사·편집자·집필진의 명성, 역사와 계보, 서평지의 평가
- 2) 범위: 출판사의 편찬목적과 이에 따른 수록 범위, 교육적·참고적 기능 여부
- 3) 배열: 자모순 혹은 주제체계순 배열의 여부, 상호참조와 색인
- 4) 표현법: 독자 수준에 적합성, 공정성, 기술의 정확성
- 5) 체재: 제본, 용지, 활자체, 여백의 적절성, 삽도와 지도의 정확성, 최신성, 자체 색인여부
- 6) 특징: 참고서목, 계속적 갱신의 방법, 출판사의 독자 지원실 운용여부

Shores의 평가기준은 Wyer가 제시한 기준과는 달리 매우 설명적인 것으로써 이후에 출판되는 여러 저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Kenneth Kister는 1978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에서 백과사전 선택과 구입에 관한 12가지의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였고(Kister, 1978, 29-39) 최근, 이 기준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15가지의 확대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 ①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범위, 내용의 깊이
- ② 독자수준과 내용의 적합성 - 독자층, 표현형식
- ③ 편집자의 권위 - 출판사, 편집자, 집필진의 권위
- ④ 신뢰성 -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 ⑤ 공정성 - 논쟁점에 대한 객관성
- ⑥ 최신성 - 기사의 최신성, 갱신정도
- ⑦ 접근성 - 배열방법과 편리성, 상호참조와 색인의 여부
- ⑧ 서지 - 서지의 여부와 정확성, 인쇄·비인쇄자료 포함, 위치
- ⑨ 삽도 - 종류, 최신성, 내용과의 조화, 질적 요소
- ⑩ 제본과 레이아웃 - 제본상태, 레이아웃의 적절성, 활자
- ⑪ 특징 - 타 저작과 비교, 인쇄본·전자본 공유 여부
- ⑫ 인쇄본과 전자백과사전의 유용성 비교 - 이용자의 관점
- ⑬ 가격 - 적절성, 할인율
- ⑭ 서평지의 평가 여부와 내용
- ⑮ 타 저작과 비교 - 타 저작과 비교한 장·단점(Kister, 1994, 15-20).

한편, Bopp과 Smith는 백과사전을 평가할 때 먼저 유명한 서평매체의 평가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경험 있는 서평자는 표준적 기준에 의거하여 새로운 백과사전을 조직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서평매체에 이미 서평된 자료는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Bopp과 Smith는 Kister가 제시한 범주와 유

사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Bopp & Smith, 1994, 436-444). 한편, 평가기준과는 별도로 선택·수서업무에서는 이용목적, 즉, 학습자, 일반이용자, 학자·전문가 등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고려할 것과, 연감과 보유판의 구입 비용, 신판으로의 교체 비용, 전자백과사전의 구입 비용 등을 고려하라고 권고한다(Bopp & Smith, 1994, 445-447).

William A. Katz도 1997년에 출판한 저서에서 Bopp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백과사전과 CD-ROM 백과사전에 대해 매우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Katz, 1997, 195-209). 이 외에도 Sader와 Lewis도 1995년의 저작에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전자와 거의 유사하다(Sader & Lewis, 1995, 29-34).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각각의 평가요소는 시대별로 약간씩 상이점이 있고, 저자에 따라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상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하면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 1) 목적과 범위: 편찬 목적, 취급 범위, 주된 독자, 내용의 깊이
- 2) 권위: 편집자·집필진·출판사의 권위, 기사의 서명 여부, 역사와 계보, 신뢰성(정확성), 서지, 서평지의 평가내용
- 3) 접근성: 배열방법, 상호참조, 색인, 여백주기
- 4) 기술형식: 표현형식, 객관성, 최신성(계속적 갱신, 연감·보유판의 발행)
- 5) 형태적 특징: 인쇄본과 전자본, 제본과 레이아웃 등의 체재, 삽도와 지도
- 6) 특징과 가격

3. 평가요소의 분석

3. 1 목적과 범위

목적과 범위에 관한 평가는 발행자의 편찬 목적, 취급 범위, 독자, 내용의 깊이 등이 포함되며, 백과사전을 평가할 때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 내용은 서문에 잘 명시되어 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흔히 백과사전을 본다. 그 의문 사항이 어떤 사실에 대한 배경정보이든, 특정 사실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 지식이든,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이든 백과사전 발행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편집 방침으로 정하게 된다.

백과사전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참고”의 두 가지 ‘의도된 목적’ 아래 출판된다. 교육적 목적은 한 사실과 연관된 지식을 종합 하항목(대항목)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고자 하는 형식을 말한다. 한편, 참고적 목적이란 지식을 잘게 쪼개어 소항목으로 삼고, 내용의 기술을 지극히 간략화 함으로써 즉답형 질문에 유용하도록 편찬된 실용적 백과사전에서 채용하는 형식이다.

교육적 목적은 백과사전의 어원에서부터 그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 Encyclopedia는 “지식 또는 학습의 체계” 또는 “잘 조화된 교육”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nkyklios paideia (enkýklios paideîá)로부터 유래되었다 (Kister, 1978, 3). Enkyklios는 원래 어원 상으로는 종합교육(Encyclical educa-

tion) 또는 예술과 과학의 순환(the circle of arts and sciences)을 의미했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백과사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예술과 과학의 체계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Krzyś, 1992, 159-160). 이는 초기의 백과사전적 저작이 지식 전 분야에 걸쳐 정보를 모으고 이를 고리처럼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백과사전의 편찬목적이 교육적인 것으로부터 현대적 의미의 참고적 가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1796-1811 사이에 독일의 Friedrich A. Brockhaus가 편찬한 Konversation-Lexion(Brockhaus)은 종래의 교육용 백과사전과는 그 스타일이 전혀 다른 소항목 중심의 참고용 백과사전으로써, 최근의 재미있고 사실적인 기사들에 대해 짧고 간략하게 기술하는 편집방침을 택했다. 편집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은 독자들이 백과사전을 이용할 때 의문에 답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써 특정 사항을 참조할 뿐이지, 백과사전 이용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을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Brockhaus는 독특한 편집 방침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고, 19세기 이후의 백과사전 편집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두 가지 목적의 가치에 대해 각각 상반된 주장이 있다. L'Encyclopédie Française의 편집자인 Charles Van Doren은 백과사전은 우선적으로 교육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참고적 기능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백과사전의 이상적 독자는 호기심 있는 평균적인 독자이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나 학생이

어야 한다고 말한다(Doren, 1962, 22-26). 반면에 Jacques Barzun은 백과사전은 무엇보다 참고적 기능이 우선하며, 목적도 의문에 대한 해답, 진실 그리고 의미를 전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적 기능은 지루하고 의심스러운 주제에 관해 단지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arzun, 1962, 8-9).

이 두 가지 주장은 각기 상대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미 위에서 기술한대로 '교육'과 '참고'는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요소는 백과사전 편집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될 수도 있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함께 채용될 수도 있다. 논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오늘날 이용자의 선호도 면에서는 Barzun의 견해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편집 경향은 양자의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백과사전의 목적은 취급범위, 주된 독자 그리고 내용의 깊이나 기술형식은 물론이고, 접근방법, 서지 등의 여러 가지 편집체제와 연계되어 있다. 백과사전의 목적이 '교육'이라면 항목은 지식의 체계적 전달을 위해 주로 대항목을 채용할 것이다. 대항목은 취급범위가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을 것이며, 기술형식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일 것이다. 대항목 중심의 백과사전 중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Britannica III의 대항목 중심주의 사전인 Macropaedia(17책)에서는 단지 681개의 대항목을 채택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과시하도록 깊이 있는 논술을 하고 있다. 매 판마다 수십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집필자로 참여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집필자가 자신이 기고한 글에 대해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명하고 참고문헌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대항목 아래에서 원하는 단편적인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석적 색인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한편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백과사전에서는 반드시 소항목 중심주의를 택한다. 소항목에서는 내용이 극히 압축되고 기술형식은 간결하다. 독일의 완전판 백과사전인 Brockhaus는 항목수가 23만에 이른다. 그러므로 내용의 기술은 압축될 수밖에 없다. 소항목 중심의 백과사전은 특정 사항을 참고할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제범위는 포괄적이고, 내용은 일반적이며 평이하다. 소항목 체제에서는 논리성, 정확성, 신뢰성을 위한 서명, 참고문헌의 첨부가 대항목에 비해 다소 소홀한 편이다. 그리고 색인의 유용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소항목 자체가 바로 전문 용어나 검색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목을 잘게 분할시켜 놓았기 때문에 항목과 항목의 연계성은 높지만 연결성은 떨어진다. 즉, 유사한 개념이 다른 항목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항목 체제는 상호참조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가자는 백과사전이 이상 두 가지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이루도록 했는지, 항목은 대·중·소항목의 어떤 형식을 택했는지, 그것이 체계적인지를 평가한다.

백과사전의 범위는 우선 국제적인가, 자국 중심적인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은 주제, 지역, 시대적 관점에서 제한

이 주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대다수 백과사전들이 발행국 중심으로 기사를 선택하고 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범위는 대상 독자의 연령 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연령 수준은 백과사전이 독자의 특정 연령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계몽사의 백과사전이나 World Book과 같은 어린이 및 청소년용 백과사전은 교과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에 두산출판사의 백과사전이나 Britannica III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취급 범위나, 기술형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과사전들이 서문에서는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전문가에 이르기까지”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가? 발행자의 이런 과장된 언급은 어디까지나 광고일 뿐이다.

독자 수준에 관한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Britannica III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 현대의 언어로... 쓰여져서 아주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도 자녀가 이해할 정도로 쉽게 집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Micropaedia 부분은 “숙제에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Britannica III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은 그 사전이 자신들의 이해력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인용 Britannica이며, 그것은 학력 수준에 맞춰서 집필되지도 않았고, 어려운 주제에 관해 기본적 사실만으로 단순하게 시작해서 그 소재가 복잡해질수록 문체도 점점 더 복잡하게 구성해 가는 소위 ‘피라미

드 스타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Kister, 1978, 34).

백과사전을 선택할 때 연령 수준과 관련하여 참고할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많은 성인용 백과사전들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요약된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면 성인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둘째, 어린이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종종 상세한 내용을 너무 생략함으로써 중요한 주제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Katz, 1997, 34).

3. 2 권 위

백과사전의 권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편집자·집필진·출판사의 권위, 기사의 서명 여부, 백과사전 출판의 역사와 계보, 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서지의 유무, 서평지의 평가내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백과사전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집필, 편집하므로 편집·집필진 전체의 학력, 경력, 백과사전 편집 경험, 기사의 서명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지식 전 분야를 분할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일, 그리고 특정 지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모두 편집기술에 해당되며, 이것이 백과사전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편집진의 권위는 대개 편집장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편집장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백과사전의 전체적인 방향과 수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편집장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Robert L. Collision은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① 편집장은 확실한 출판계획을 갖고 있어

- 야 한다.
- ② 편집장은 경쟁자의 활동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 ③ 편집장은 자신의 스탭 또는 외부의 지원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존의 출판물을 표절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 ④ 편집장은 다른 국가의 편집자, 판매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또한 백과사전을 참고서기에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관심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편집장은 현대의 학문, 정치적 경향, 그리고 분쟁 등에 대해 현실성 있게 발맞추어야 하며, 하루사이에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토픽들도 알아야 한다.
 - ⑥ 편집장 자신은 비록 편견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며, 독자의 감수성(인쇄된 지식에 따라 생각이 변할 수 있는)을 지키는 자로써 사전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
 - ⑦ 이상의 모든 사항은 편집장 자신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Collision, 1966, 13-14).

평가자는 편집장의 권위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편집진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권위 있는 백과사전은 서문에 집필자, 편집진의 이름과 그들의 책임을 명시하며,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임편집인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Britannica III는 편집직원, 공헌자(집필진 포함) 등이 모두 5,00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Kister, 1994, 37).

집필진의 권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① 저비용의 신진 저자인지, 전문가인지를 확인한다. ② 집필자 명단에 수록된 주제별 집필자를 확인하고, 현재 그 분야의 중심 리더와 비교해 본다. ③ 집필자의 현 직위를 확인함으로써 백과사전의 정확성, 최신성 그리고 객관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Katz, 1997, 203).

백과사전의 역사나 계보, 그리고 출판사나 후원기관의 명성과 역사도 백과사전의 권위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훌륭한 백과사전으로 평가되는 저작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듭한 산물이다. 한 백과사전이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은 독자들로부터 그 존재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자는 백과사전의 발행 역사와 계보, 출판사의 경험과 업적, 전문 출판물의 경향 그리고 서평에서의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권위의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인쇄된 글은 정확하다고 믿으며, 그것이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준다. 더구나 백과사전은 다른 참고자료에 비해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백과사전은 불가피하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Harvey Einbinder는 The Myth of the Britannica라는 책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서구 백과사전들의 오류를 밝히고 있다. 권위 있는 백과사전들도 실수 때문에 독자에게 혼란을 준다. 그러나 훌륭한 백과사전은 사실을 진실하게 기술하고 오류를 최소화한다(Kister, 1978, 31). 평가자는 개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항목들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내용의 정확성과 질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사 말미에 기재되는 서명(署名)과 서지(참고문헌목록)도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를 뒷받침한다. 집필자 서명은 집필자가 기고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의미한다. 서지는 일반적으로 각 사항의 간략 해설로 인한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이용자에게 향후의 독서 방향을 시사해 준다. 이 두 요소는 아울러 기고문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준다. 서지는 수록 범위, 선택 기준, 배열 순서, 서지적 사항의 정확성 등을 평가한다(박준식, 1998, 388).

백과사전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의 하나는 서평매체를 이용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서평은 서평 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 행해진다. 서평전문지에 서평문이 실린다는 것은 그 자료가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서평지에서 서평되고 있다면 그 자료는 일단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3 접근성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원하는 주제 또는 항목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써 배열 방법, 상호참조, 색인, 여백주기 등의 요소가 있다. 이들 각 요소는 항목 채택의 방법(대항목, 소항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쇄본 백과사전은 일반적으로 항목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배열의 우수성은 항목을 자모순으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채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했는가에 달려 있다. 항목은 주제의 중요도에 따

라 대·중·소항목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이것도 독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가자는 편집자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중·소항목을 유별했으며, 그것은 얼마나 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항목채택과 배열방법, 색인 그리고 상호참조의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일 백과사전이 지식의 체계적 전달을 위해 대항목을 채택하였다면 작은 주제나 단편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색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항목 아래에서는 매우 분석적인 색인이 필요해지게 된다. 그래서 비교적 대항목주의를 존중하는 Collier's Encyclopedia는 색인항목이 45만건에 이르고, 대·중·소항목을 병용하는 The Encyclopedia Americana와 Britannica III는 각각 약 35만건, 23만건의 색인 항목을 자랑한다(Sader & Amy, 1995, 12).

그러나 소항목 중심 백과사전에서는 색인의 필요성이 반감되거나 거의 상실된다. 왜냐하면 항목이 워낙 세분되어 독자가 찾는 용어가 바로 항목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항목 중심으로 편성된 우리나라의 『중앙대백과사전』이나 The Columbia Encyclopedia 또는 The Random House Encyclopedia는 아예 색인이 없다.

색인의 평가는 단지 항목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독자가 찾고자 생각되는 항목들을 가능한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즉, 얼마나 분석적인 색인인가? 예를 들면 사항, 사건, 인물, 저자, 서명, 지명, 기념물, 건조물, 산하, 동·식물명 등등 본문에서 기술된 요소를 가

능한 한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떠한 형식으로 관련 항목을 지시해 주는가도 살펴야 한다. 색인은 단지 해당 페이지를 지시해 줄뿐만 아니라 그 위치까지도 지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한 페이지를 2등분 또는 4등분하여 '399b'와 같은 식으로 지시하게 되면 탐색이 매우 쉬워진다.

항목채택과 상호참조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항목 중심의 백과사전에서는 항목과 항목간의 상호관련성이 적다. 그러나 소항목 중심의 백과사전에서는 반대로 상관성이 매우 높다. 항목간의 상관성은 항목의 세분화 정도에 비례해서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소항목 중심의 백과사전에서는 상호참조가 꼭 필요해지게 된다.

상호참조는 일반적으로 '~보라 참조', '~도보라 참조'의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명한 백과사전에서는 '~의 아래를 보라 참조'(See under reference)도 사용한다. 이 참조는 독자가 찾는 특정 항목이 어떤 항목 안에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 형식은 대항목 중심주의 백과사전에서 자주 응용되며, 흔히 색인의 한 형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보라 참조'가 채택된 항목으로 안내하고, '~도보라 참조'는 항목간의 연관성을 말해 주는데 비해 '~의 아래를 보라 참조'는 항목이 아니라 기술된 내용 중에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다.

접근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여백주기(Marginal abstracts)와 러닝 타이틀(Running title)이다. 여백주기는 책의 좌·우의 여백에 그 문단

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어(要語: keyword)를 기재함으로써 본문 내용의 검색을 쉽도록 한 것이다(박준식, 1977 12). 여백주기의 예는 과거 서양도서에서 본문 중의 내용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였지만 동양에서도 책의 상단 여백에 요어를 삽입함으로써 본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박준식, 1977, 139).

여백주기의 형식은 오늘날 도서에서는 상당히 사라졌지만 백과사전에서는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백과사전은 일반적으로 많은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한 페이지를 두 세 개의 칼럼으로 조판하고, 활자 크기도 매우 작다. 따라서 색인에서 특정 페이지를 지시해 줘도 원하는 항목을 찾기가 어렵다. 이럴 때 여백주기는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러닝 타이틀도 여백주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러닝 타이틀은 책의 상단 좌우 여백에 그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항목과 끝나는 항목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 형식은 특정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 페이지에 기술된 항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4 기술형식

기술형식은 백과사전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편집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표현형식, 객관성, 최신성(계속적 갱신, 연감·보유판의 발행) 등의 요소가 평가대상이 된다.

표현형식은 백과사전이 의도하는 독자의 수준에 적합한가를 평가한다. 여기에는 명확성

과 적합성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표현의 명확성으로써 어휘선택, 문장과 문체가 해당된다(Sader & Lewis, 1995, 32). 백과사전은 방대한 정보를 축약하여 이를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표현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자는 집필자와 독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편집자는 백과사전의 편찬 의도에 맞게 편집 방침을 정하고, 내용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집필자가 제출한 원고를 수정,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어휘와 전문용어를 피하고, 표현을 평이하게 고쳐 쓰게 된다.

둘째, 독자 수준의 적합성이다. 즉, 그 백과사전이 의도한 독자의 수준에 적합한 표현형식을 구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의 깊이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즉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전문적인 논술을 하고 있는 Britannica의 Macropaedia와 아동용 백과사전인 World Book은 당연히 어휘와 문장구조, 문장길이 등의 표현형식이 달라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백과사전 발행자들은 가급적 광범위한 시장을 추구하기 위해 독자에 따른 차별화를 외면한다.

편집과정에서 집필자의 기고문을 수정할 때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편집진에서 표현형식을 수정할 때는 집필자의 원래 의도를 훼손시키거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집필자로서의 학자는 정확성(명확성)을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며, 그는 이러한 정확성의 범주 안에서 불가피하게 전문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특정 주제에 관해 그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할 권리를 요구한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권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글을 손보려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을 의심할 것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위험한' 행위로 치부할 것이다(Preece, 1966, 815). 따라서 편집자는 단지 문장과 표현을 명확하게, 독자 수준에 맞추어 바꾸는 선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표현형식을 평가할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백과사전은 수많은 사람이 집필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항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현형식의 일관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객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객관성은 백과사전의 전제 조건이다. 객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요소 즉, 사상, 종교, 국가, 인종, 성적 학대, 동성연애, 낙태, 안락사 등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체크해 보는 것이다. 이런 논쟁점들과 관련하여 특정 내용을 선택하거나 배제하였는가, 만일 선택하였다면 문제의 모든 면을 설명하면서 공정하게 취급했는가, 제작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항목 선택과 기술의 객관성은 이미 13세기의 백과사전에서 구현되고 있다. Vincent of Beauvais는 이교도와 기독교의 주장들을 편견 없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무수한 대학들이 설립되던 당대의 급속한 지식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Collision, 1994, 261). 한편, 객관성이 결여 되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다. 동물 행동 연구자인 Michael W. Fox는 1991년 Britannica 개정판에서 동물권리보호 시각에서 '개에 대한 생물 의학적 실험이 비 윤리적이며, 불필요한 실험'이라는 기사를 썼다. 얼마 후, Britannica는 의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1993년 개정판에서는 논란이 된 부분이 삭제되었다(Bopp & Smith, 1995, 442).

객관성의 유지가 쉬운 일은 아니다. 가령 한국 전쟁에 관한 주제가 있다면 이 기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남한 작가와 북한 작가 혹은 중국인이나 미국 작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사한 예로 국경지대를 보여주는 지도를 백과사전에 수록하는 경우에 제시된 그 지역이 과거 분쟁의 대상이었던 지역이라면 이는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없었던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백과사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백과사전 학자들은 가능한 공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과사전이 논쟁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논쟁점이 있는 사건들을 삭제해 버리는 것보다는 상황을 진술 하면서 그 논쟁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Bopp & Smith, 1995, 442).

객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편집자가 특정 관점을 강조하거나 평이하게 처리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 역점을 두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집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 지면을 얼마나 할당하는가와 관계가

있다. 한 전문가가 항목의 집필을 요청 받았을 때 최초의 반응은 자신에게 할당된 지면의 양이 너무 적다고 불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집필자는 제한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이 빠져서도 안되고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과사전의 기사를 쓰는 것이 책을 쓰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백과사전의 기사는 관련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작가가 글을 쓰면, 그것은 일부만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의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편집진이 양자를 조절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진리란 관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상반되는 주장들을 살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집필자의 명성이 높을수록 조정을 위한 편집자의 기술이나 재치가 요구된다(Collision, 1994, 264). 기사의 길이를 할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편집진은 모든 주제분야를 완전히 균형 있게 하여 독자들을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평가자는 같은 종류의 백과사전을 골라 특정 부분의 기술 내용을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객관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기술형식을 평가하기 위한 세 번째의 요소는 최신성이다. 최신성은 타임래그(time-lag), 개정 빈도와 관계가 있다. 타임래그는 특히 통계적 데이터일 경우 꼭 필요한 평가 요소이다. 이것은 수록된 데이터의 마감 연도와 출판 연도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타임래그는 짧을수록 좋다. 그리고 개정 빈도는 최근의 학문 변화(진전) 추세가 참고자료의 빈번

한 개정을 요구하므로 그 주기가 짧을수록 좋다(박준식, 1998, 389).

백과사전의 내용을 최신성 있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유용한 수단은 개정판이나 갱신판을 내는 일이다. 개정판 형식은 Louis Moréri가 Grand Dictionnaire Historique (1674)를 출판한 뒤 내용을 갱신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비롯되었는데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다(Collision, 1994, 264). 한편 갱신판의 형식은 Britannica 14판(1929-1974)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14판은 45년이 지나 15판이 나오기 까지 매년 일정 부분을 갱신해 왔다. 대형 출판사들은 백과사전에 따라 5-10% 정도를 매년 갱신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계속적 갱신'(continuous revision)이라고 하며, 출판사의 판매전략으로 활용된다.

계속적 갱신은 최신성 유지를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갱신이 항목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갱신을 요하는 부문은 과학, 기술, 전자, 역사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런 부문의 갱신 요구가 중대 변화가 적은 인류학 같은 부문에 비해 훨씬 크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기술적 어려움이다. 편집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영향을 받는 내용들을 모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되었다면 편집장은 다음 판에서 그의 전기와 심지어 그 나라 역사까지도 바꾸어야 하는데, 그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모든 항목에 그 사건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 항목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그 기사

끝머리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 인물이 죽었을 때, 그의 숨겨진 이야기, 그의 역사적 의미나 중요성이 재평가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고학과 같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관련 분야의 모든 내용들의 근간이 되었던 기존의 확설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갱신은 단순한 문장의 추가나 단어, 낱자 등의 삽입 이상의 것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연구의 변화 속도와 더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편집상의 난점이 되고 있다(Collision, 1994, 264).

이러한 난점은 갱신 수단을 전자화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과 인쇄 기술의 발달은 계속적 갱신에 장애요소가 되었던 현실적이면서도 기술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었다. 오늘날 전자백과사전들은 수정, 삭제, 삽입 등 갱신을 위한 편집을 자유롭게 해주며, 인쇄본으로 출판하는 일도 매우 쉽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들의 선택 능력을 높이고, 최신의 기사를 항상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쇄본 백과사전의 최신성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개정판 혹은 갱신판의 발행 여부와 기간, 특히 계속적 갱신일 경우 갱신정도, 타임래그, 연감이나 보유판의 발행 여부, 온라인, CD-ROM, 웹버전을 함께 발행하는지의 여부와 갱신빈도 등이다.

3. 5 형태적 특징

형태적 특징은 이미 언급한 내용적 평가기

준만큼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들은 흔히 내용보다는 형태에 이끌려 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독자는 외형과 표지로 그 책을 판단하기도 하고, 무의식중에 지면 편집이나 색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책을 고르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용의 백과사전에서 두드러진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용 백과사전을 구입할 때 대개 본문의 길이와 삽도의 비율을 비교한 후에 선택한다고 한다(Bopp & Smith, 1995, 438-439). 그래서 오늘날 백과사전은 전반적으로 삽도 특히, 천연색 삽도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경향이다. 형태적 특징의 평가요소로는 인쇄본과 전자본, 제본과 레이아웃 등의 체재와 삽도 및 지도 등이 포함된다.

체재는 그 책이 존재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인쇄본 백과사전과 온라인·CD-ROM·인터넷 등의 전자백과사전이다. 인쇄본은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구입 비용을 예상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권으로 된 책은 다수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보존 공간을 요하고 최신성 유지가 어려우며, 탐색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전자백과사전은 대량의 정보 저장과 복잡한 탐색, 그리고 신속한 갱신을 가능케 한다. 특히 CD-ROM 백과사전은 CD-Net을 통해 조직 내의 원격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최근 멀티미디어 CD-ROM 제품의 등장은 텍스트 및 수치정보에 더하여 그래픽, 이미지와 음성 정보를 저장,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보존 공간도 적게 차지한다.

참고사서는 참고정보원으로써 인쇄본과

CD-ROM, 온라인, 인터넷 백과사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이들을 복수로 구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인쇄본 백과사전을 평가할 때는 전자백과사전을 동시에 출판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쇄본의 취약점인 최신성과 원격서비스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능을 전자백과사전이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재의 두 번째 평가요소는 책의 물리적 형태 즉, 제본·레이아웃·용지나 활자체 등이다. 제본은 도서관 장서용과 일반 독자용으로 구분해서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매자가 제본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견고한지, 용지가 적절히 선택되었는지(뒷면의 투명도와 두께, 촉감, 견고성 등의 관점에서), 책을 펼쳤을 때 잘 펼쳐지는지를 확인한다.

지면편집(layout)은 내·외부 여백과 행간의 적절성, 삽도와 지도 등의 배치, 활자의 크기와 선명도를 평가한다. 현대의 백과사전은 독자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여백과 행간을 여유 있게 처리하며, 제본과 용지를 고급화하고, 비교적 큰 활자체를 쓰고 있다.

다음은 삽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백과사전의 삽도는 사진, 그림, 표, 그래프, 지도 등을 말하며, 현대 백과사전에서 본문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삽도는 위에서 언급한 최신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삽도의 사용은 중세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St. Isidore의 백과사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훌륭하게 삽도를 사용한 예는 12세기에 만들어진 Herrad의 Hortus Deliciarum 일 것이다. 초기의 많은 백과사전들에

서 삽도는 유용성보다 장식으로써의 의미가 더 강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매우 정확하고 아름다운 삽도를 신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의 Encyclopédie는 삽도를 실은 별책으로 유명한데 20세기에 와서도 재인쇄될 만큼 훌륭하였다. 1950년에 이르러 삽도는 더욱 화려해졌고 그 기능도 부수적 텍스트로 제공될 수준에 도달하였다(Collision, 1994, 263).

삽도의 평가는 크게 삽도 수와 질적인 면 그리고 본문과의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질적 평가요소는 정교함과 정확성, 최신성, 그리고 선명도와 흑백과 천연색의 비율 등이다. 백과사전에서 삽도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따라서 당연히 본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위치는 본문과 인접해야 한다. 아울러 독자수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단지 장식적인 효과를 고려한 삽도는 가격을 높이는 역할만 할뿐이다. 오늘날 삽도가 빈약한 백과사전이 저평가 되듯이 함부로 선택된 수준 낮은 삽도는 백과사전의 다른 훌륭한 요소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백과사전에서 외국관련 삽도의 부정확성에 대한 불만이 편집자로 하여금 삽도 또는 사진 선택에 있어 화려함보다는 정확성이나 정교함 그리고 최신성에 더 민감하도록 만들고 있다.

백과사전에서 지도는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수도 많다. 우리 나라의 백과사전들은 주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Rand McNally나 C. S. Hammond사의 지도를 이용하고 있다. 성인용 백과사전에서 가끔씩 지도가 별책으로 출판되는데 색인과 결합되기도 한다. 청소년

과 아동용 백과사전은 주로 본문에 지도가 있으며, 이런 경우 색인을 통해 특정 항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서는 얼마나 많은 또는 어떤 종류의 지도가 있는지, 세계의 주요 도시나, 역사적 진보, 정치적 변화, 토지, 이용, 기후, 산천 호수 등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교함이나 정확성, 선명도 등도 지도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3. 6 특징과 가격

새로 발행된 백과사전은 기존의 유사한 주제와 취급 방법을 가진 다른 백과사전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타 저작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첫 단계는 신판, 개정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백과사전이 이미 소장된 자료의 개정판이라면 구판과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면 Britannica III(15판)는 이전의 14판과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한 세트를 세 파트로 나누어 취급범위와 깊이를 달리함으로써 교육적 목적과 참고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 그 예이다. 이는 곧 신판의 구매를 정당화시킨다.

다음 단계는 구판과 비교한 개정의 정도 즉, 새 항목과 새 데이터가 얼마만큼 보완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이는 수록된 내용을 출판 연도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판이 아니면서, 기존의 저작과 유사할 경우에는 중복의 정도, 독특한 정보의 포함 여부, 대상 독자의 동일 여부 등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Britannica 15판의 Propaedia는 고대 이집트에 관한 개관적 지식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우수성이 어떤 것보다 적수가 되지 않는다(Bopp & Smith, 1995, 440).

특징을 평가하는 세 번째의 단계는 강조점(Emphasis)을 확인하는 일이다. 강조점은 백과사전이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편집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백과사전들이 특별한 강조점을 가지고 출판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어떤 백과사전은 과학용으로, 또 다른 것은 문학용으로 훌륭하다는 식이었다. 오늘날에 와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학술성과 대중성 사이의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되었다(Katz, 1997, 202).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과 '참고'라는 백과사전의 목적과도 관계되며, 항목을 선정하는 범위나, 내용을 기술하는 형식 및 깊이와도 관계가 있다.

백과사전의 가격도 특징의 한 요소로써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해 도서관 예산이나 개인의 수입이 조금씩 상승한다 해도 구입해야 할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구매 능력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하물며 예산이 제자리걸음이라면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그래서 도서관은 매년 갱신판을 구매할 수 없으며, 동일한 목적과 범위를 가진 다른 백과사전마저도 구입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방법은 가격과 유용성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의 판매시장은 도서관이나 학교 등 교육시장과 일반 소매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격 정책은 이러한 양분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출판사들은 도서관이나 학교에 비교적 많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판매를 통한 이익의 추구가 아닌 판매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출판된 백

과사전이 도서관에 소장되면, 그 백과사전은 우수한 백과사전으로 인식 받게 되며,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은 개별적으로 그 백과사전을 구입하도록 자극하게 될 것이다(Bopp & Smith, 1995, 445).

이외에도 백과사전의 가격과 관련한 평가 사항은 정가와 판매가의 차이, 인쇄본과 전자 백과사전 및 경쟁 백과사전과의 가격 비교, 장서판과 일반용의 구분, 연감과 보유판의 가격 등이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백과사전의 평가요소를 분석하였다. 평가요소는 기존의 여러 평가기준에서 제시된 것을 분석한 결과 목적과 범위, 권위, 접근성, 기술형식, 형태, 특징과 가격 등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범주별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목적과 범위: 편찬 목적이 지식의 체계적 전달에 있는가, 단편적 정보제공에 있는가, 아니면 양자의 조합방식인가, 취급 범위는 국제적인가, 자국 중심인가? 주된 독자(일반 성인용, 청소년용, 전문가용 등)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의 깊이는 독자수준과 일치하는가 등을 평가한다.

2) 권위: 편집진·집필진·출판사의 권위 특히, 편집진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편집진, 집필진은 다수이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백과사전 출판의 역사와 계보, 후원 기관의 명성도 확인한다. 기사의 신뢰성(정확성)도 권위의 주요 요소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명, 서지의 포함여부와 서평지의 평가내용도 확인한다.

3) 접근성: 항목채택(대·중·소항목)의 방법과 적절성, 그리고 항목 형식과 배열방법, 색인, 상호참조의 형식과의 상관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색인의 풍부함과 적절성 및 색인방법의 다양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상호참조는 ‘~보라 참조’, ‘~도보라 참조’, ‘~의 아래를 보라 참조’ 등 다양한 형식을 쓰고 있는가, 여백주거나 러닝 타이틀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술형식: 먼저 표현형식은 표현의 명확성(어휘선택, 문장과 문체)과 독자 수준(청소년용, 성인용, 전문가용)의 적합성 그리고 전체적인 일관성을 평가한다. 논쟁점이 있는 주제에 대해 항목을 선택하고 기술하며 지면을 할당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최신성은 기사의 최신성과 타임래그, 개정판, 갱신판, 보유판, 연감의 발행 여부와 기간, 전자백과사전을 함께 발행한다면 갱신빈도를 평가한다.

5) 형태적 특징: 인쇄본과 온라인·CD-

ROM·인터넷 등의 전자백과사전을 발행하는가, 책의 물리적 형태 즉, 제본·레이아웃·용지나 활자체 등이 적절한가, 삽도와 지도는 풍부하며, 정교함과 정확성, 최신성, 그리고 선명도와 흑백과 천연색의 비율 등이 적절한가, 삽도와 지도는 본문 내용과 일치하며, 위치가 적절한가 등을 평가한다.

6) 특징과 가격: 신판, 개정판의 여부, 개정판이라면 구판과 구별되는 요소, 개정의 정도 그리고 다른 저작과 비교한 강조점을 밝힌다. 가격의 평가요소는 정가와 판매가의 차이, 인쇄본과 전자본, 그리고 경쟁사와의 가격 비교, 장서판과 일반용의 구분, 연감과 보유판의 가격 등을 평가한다.

오늘날 백과사전 출판사들은 인쇄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본을 동시에 출판하며, 완전히 독립된 전자본을 출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전자백과사전은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써 이들 전자백과사전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1986 “서양백과사전의 역사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13 : 1-28.
- 박준식. 1998. 『정보서비스론』.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 _____. 1977. “서양색인과 색인법의 발전과정.” 『도서관학논집』 4 : 131-194.
- _____. 1983 “백과사전고.” 『도서관』 38(2) :

5-21.

- Barzun, Jacques. 1962. “Note on Making of a World Encycloped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Sept.) : 8-9.
- Bopp, Richard E. and Linda C. Smith. 1995.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2nd

- ed. Englewood CO : Libraries Unlimited.
- Cheney, Francis N. and Wiley J. Williams. 1980. *Fundamental Reference Sources*. 2nd ed. Chicago : A.L.A.
- Collision, Robert L. 1966. *Encyclopedias: Their History Throughout the Ages*. 2nd ed., New York : Hafner.
- Collision, Robert L., W. E. Preece and A. W. Read. 1994. "Encyclopaedias and Dictionaries." in: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 Macropaedia*. 15th ed. 18 vols. Chicago : Encyclopaedia Britannica, 257-286.
- Doren, Charles Van, 1962 "The Idea of an Encyclopedi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 (Sep.): 23-26.
- Gates, Jean Key. 1994. *Guide to the Use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ources*. 7th ed. New York : McGraw-Hill.
- Katz, Bill. 1998. *Cuneiform to Computer: A History of Reference Sources*. History of the Book Series. no. 4. Lanham, Md. : Scarecrow Press.
- Katz, William A. 1997.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I. Basic Information Sources*. 7th ed. New York : McGraw-Hill.
- Kister, Kenneth F. 1994. *Best Encyclopedias: A Guide to General & Specialized Encyclopedias*. 2nd ed. Phoenix, AZ. : Oryx Press.
- Kister, Kenneth F. 1981. *Encyclopedia Buying Guide: A Consumer Guide to General Encyclopedias in Print*. 3rd ed. New York : R. R. Bowker.
- Krzysz, Richard, 1992. "Encyclopedia: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Encyclopedia Design."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 by Allen Kent, 50. vols. New York : Marcel Dekker, 159-184.
- Preece, Warren E. 1966.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and the Planning of Encyclopedias."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9. no. 3 : 815.
- Sader, Marion and Amy Lewis, ed. 1995. *Encyclopedias, Atlases & Dictionaries: A Bowker Reference for Libraries*. New York: R. R. Bowker.
- Shores, Louis. 1954. *Basic Reference Sources*. Chicago : A.L.A.
- Wyer, James. I. 1930. *Reference Work*. Chicago : A.L.A. : 20-21